

♫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다

성경말씀: 벧전2:9

요즘 우리는 내면을 살피는 시간, 김남준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벧전2:9.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울림이 있는 존재, 사명을 가지고 선택받은 존재, 왕가의 제사장,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중보 역할,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분된 존재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 그러나 세공을 마친 완성품이 아니라 원석,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과 시련 등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셔서 찬란한 보석이 되게 하신다.

다이아몬드 이야기, 국내의 대기업 전시 목적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33캐럿 다이아몬드 구매 다이아몬드 중량, 투명도, 색깔, 절삭 상태 등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희귀한 다이아몬드는 희귀한 소유자, 엄청난 가격, 그런데 이런 다이아몬드를 사서 호두를 깨는 데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 사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주시고 사신 존재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백성

영어로는 peculiar people, 특이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

구약성경 말씀들 참조

신7:6-7

레26:12,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특별한 보물 백성

보물의 소유주는 보물을 어떻게 다루나? 소중하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돌봄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고통을 받으면 살 때에는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다투, 바울 그러나 종말에는 그런 돌봄을 받을 것이다.

특별 보물 같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어떻게(롬8:32), 이렇게 그분의 소유 백성이 되었다.

그 이유

(1) 우리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 인간과 다른 점,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2) 구원받으면 이미 사랑스러운 존재,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 성화되면서 더욱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사탄과 마귀들, 세상,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야 완전한 실체 사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창조 세상 변화(롬8:21-22). 물론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존재,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는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때에는 사탄 마귀 제압,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이 달성됨
현실 세계의 성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현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면서 산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라(마6:9-13).

우리는 실망할 때가 더러 있다(시77:1-9). 중요함

영적 침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토저의 표현: 나를 보면 가장 비관적인 사람, 장래를 생각하면 가장 낙관적인 사람

즉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그러나 다 가공이 된 보석이 아니라 원석의 상태

어떻게 가공이 되는가? 시련과 고통을 통해(벧전1:7)

그러므로 시험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 특이한 보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별 보물 같은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보물,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임 교회 역시 보물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 성도들의 거룩함의 총 결집
교회의 아름다움은 신자들의 아름다움, 신자들의 아름다움의 원천 그리스도

벧전2:9, 너희는 특별한 소유 백성

벧전2:11-3:7, 신자 개개인의 거룩한 삶 강조, 개인이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단체가 일시에 거룩해지는 것 불가능

예배를 생각해 보라. 사적 예배와 공예배, 많이 다르다.

공예배: 개인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모여지면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

예수님의 교회(마16:18),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건물로 모이는 모임은 사라질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영원히 존속한다.

신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 교회에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벧후1:3-4) 특히 4절
Divine nature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 Human nature에서 Divine nature
딱딱한 교리적 명제가 아니다.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받기 전의 우리 상태를 보라: 이 세상의 자원이 우리가 가진 것의 전부

학문 예술 철학 등을 통해 신성의 일부 경험: 그러나 진정한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다.
그러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존재가

됨, 개인적인 일 동시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 보물 백성 같은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

신자의 소명: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고난과 시련이 있다. 개인과 교회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겨 나간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볼해야 하는 대가이다(빌1:29).

교만과 열등감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신자는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신앙의 자존감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이 알아주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없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
마땅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살아야 한다. 즉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자신의 정체를 알고 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불신 상태: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함, 세상탓 부모탓 등, 대부분의 죄의들이 여기에 걸려넘어짐
또 다른 부류: 교만의 극치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뒤에는 근거 없는 우월감,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전7:22, 딤후6:1-2).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속한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바울(골3:1-2)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이다.

변영 복음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하나님을 따르면 물질의 복 받는다. 삼박자 구원, 거짓말

하나님의 복은 두 가지:섭리의 복과 영적인 복

섭리의 복: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영적인 복: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구원받고도(혹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전 시간을 세상의 것에만 쓰면 문제가 많다. 영적인 눈이 먼 사람이다.

이유: 하나님의 특별 소유 보물 백성임을 알지 못하므로

이렇게 되면 나타는 병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 돈 명예 학식 등 가진 사람 존중(약2)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 그것을 이미 알고 하나님께 내어맡긴 사람
그래서 삶에 시련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우리를 단련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시련과 고통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한다. 광야 시리즈, 대부분의 인물은 광야의 고통을 거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 보물이다

우리의 위치(시27:10), 세상의 부모가 버린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입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면 세상의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게 된다(시27:5).

심지어 우리 자신이 밭고 싫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히13:5-6).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존재의 울림을 낼 수 있다. 아니 그냥 낸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1. 롬5:8

2.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한 날이 역사의 한순간에
있다. 바로 그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데도 우리는 공통적인 시험을 받는다(고전10:13)

어려움과 조롱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생각해 보고 자존감을 가져라

이런 자존감은 세상의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거지가 아니라 왕자와 공주의 삶을

윤상현 황선연 부부 같은 경우 큰 귀감이 된다. 최재원 최정래 자매 부부

잊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임을